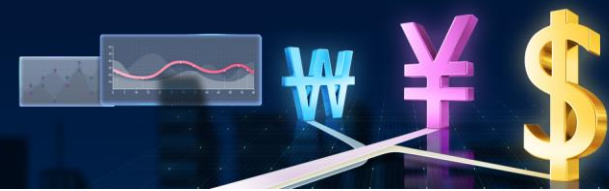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 (2023.3.30)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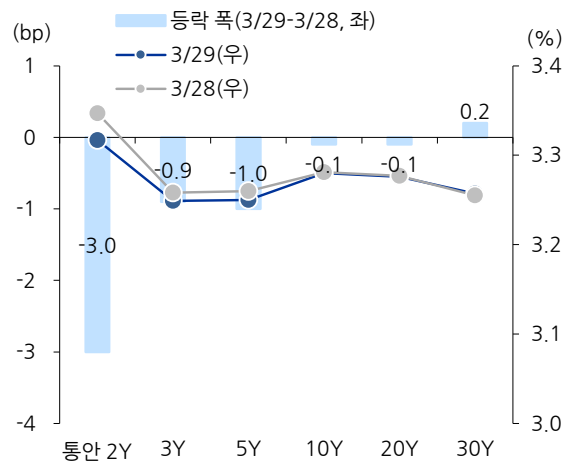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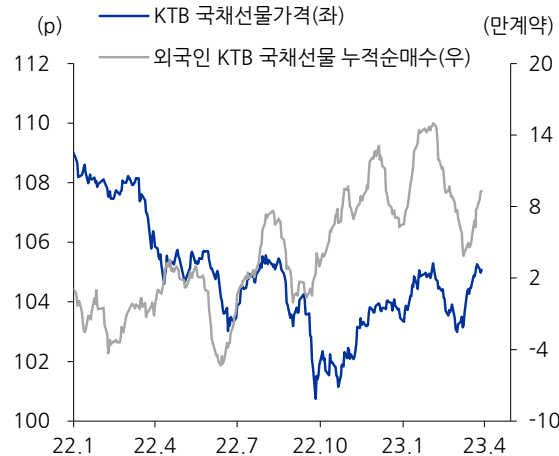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3/29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249%	-0.9	-3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280%	-0.1	-0.7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.1	2.3	0.3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07	9.0	8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4.67	11.0	-1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56%	-1.2	12.5
	미국채 10년물	3.572%	0.7	12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48.4	-50.3	-48.8
	독일국채 10년물	2.322%	4.0	-0.4
	호주국채 10년물	3.284%	-1.4	-8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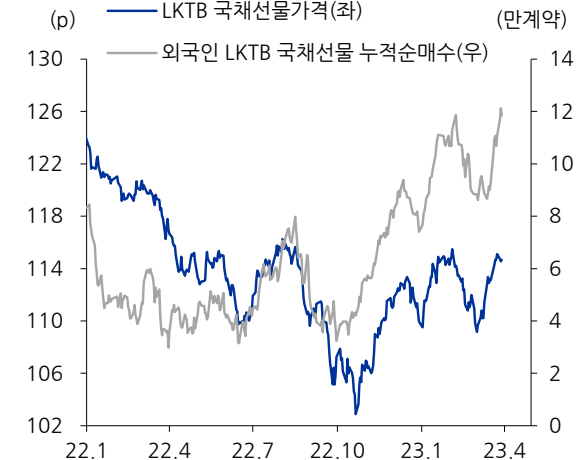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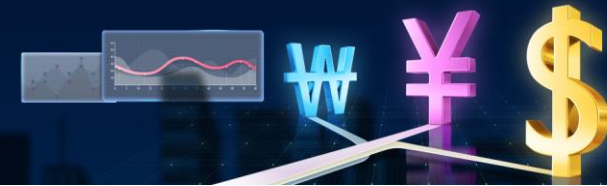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보합 마감. 은행 리스크 잔존하나 점차 진정 중.
- 개장 초반 상승 출발한 금리는 은행 리스크 추이를 지켜보며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 지속.
- 국내 기대인플레이션이 3.9%로 하락했고 호주 물가가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됐으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 마감. 은행 리스크 점차 진정 중.
- 시장의 관심은 PCE 물가로 점차 이동 중.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하원 증언에서 은행 감독과 규제를 강조하며 전일과 동일한 태도를 보여줌.
- 금일 ECB 경제보고서 발표와 이사회 개최. 독일 소비자물가 예비치도 예정되어 있음.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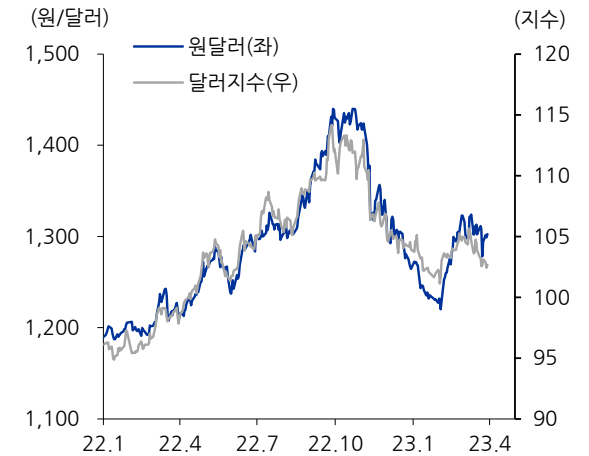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3/29일	1D	1W	YTD
원/달러	1,302.70	0.3%	-0.4%	3.0%
달러지수	102.66	0.2%	0.1%	-0.8%
달러/유로	1.085	0.0%	-0.1%	1.3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6.89	0.2%	0.5%	-0.4%
엔/달러	132.85	1.5%	1.1%	1.2%
달러/파운드	1.232	-0.2%	0.4%	1.9%
헤알/달러	5.14	-0.6%	-1.9%	-2.8%
상품 WTI 근월물(\$)	72.97	-0.3%	2.9%	-9.1%
금 현물(\$)	1,964.69	-0.4%	-0.3%	7.8%
구리 3개월물(\$)	8,980.50	0.0%	1.0%	7.3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홍콩증시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+3.90원 상승한 1,302.70원에 마감.
- 간밤 미국 시장에서 은행권 불안이 완화되면서 달러는 하락. 원달러도 전거래일 대비 -2.20원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음.
-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방 압력 가해진 가운데, 차 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가능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일부 겹치며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음.
- 반면 홍콩증시는 알리바바 분사 영향으로 중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+1.9% 상승. 국내증시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+0.4% 상승 마감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+0.2% 상승한 102.66 기록.
- 은행권 불안이 진정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도 회복. 전일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은행권에 더 많은 자본과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. 파월 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과의 회동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발언.
- 유로화는 보험에 그쳤으나,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에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위험 선호 심리 회복, 분기 말 포지션 조정 등으로 큰 폭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.